

# 업자 접대 받은 공무원 “OK?”

김영란법 두 머슴

# 축하 꽃·화분 보내기는 “NO!”

광주시 남구의 계약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접대의혹 제보를 받았지만, 1달여 동안 해당 공무원만 불러내 사실 관계만 파악한 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회계과 공무원 20여 명은 지난해 12월께 화순에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산행을 다녀온 뒤 또 화순소식사에서 식사를 했다. 이 식당은 6급 공무원인 김모 계장과 친분이 있던 여성 인테리어 업체

남구 회계과 20여명 식사비 건설업자가 50만원 선결제 남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 대표 A씨가 소개해준 곳이다. A씨는 남구 회계과 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에 50만원을 선결제 했으며, 회식을 마친 김씨는 50만원을 초과한 비용만 지불했다. 김 계장은 2014년 광주시 남구 봉선1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동 주민자치위원이었던 A씨와 친분을 맺은 뒤 지금까

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씨를 2차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확인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김씨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지난달 접대의혹 제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구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월 감사실장이 공무원의 접대의혹 소문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감사에 착수할 정도로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제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청렴도를 핑계로 꽃과 화분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구시대적 발상이다. 축하 꽃도 뇌물인가,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꽃과 화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자 화훼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26일 시교육청을 찾아 항의 시위를 열었다. 정부가 농가와 영세 상인 고충을 고려해 ‘정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선물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섬세한 행정을 펼친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꽃·뇌물’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 농가와 상인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화훼업계 종사자들 주

광주시교육청 수수 금지에 화훼업계 관련 종사자들 “청렴도 핑계 영세상인 말살” 시교육청 방문 항의 시위 장이다. 한국화원협회 광주지회, 광주꽃예술타기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광주지회, 광주화훼유통협회, 광주·전남 분화협회 등 화훼관련 22개 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이 이날 오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화분 등을 수수 금지하도록 한 공문을 철

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꽃은 문화이자 뇌물이라 할 수 없다”며 “이런 공문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말살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상황 정상화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청렴도 핑계 꽃 핑계 맞다”, “청렴했잖아 소상공인 정리하잖아” 라는 글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도 들었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둔 지난달 19일 지역 전체 학교와 직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딱·화분·과일 등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을 전면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 시 신분상 처분도 예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윤장현 전 시장 채용 청탁 혐의 추가 기소

광주지검, 사기범 등 4명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을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6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50)씨, 전 광주시 산하 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교감은 기소유예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그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 기관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을 한 점은 시장으로서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녀 2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외자’로 둔갑시켰고 자녀들이 채용된 후에도 정규직 정교사 채용을 청탁했으며 윤 전 시장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사기범 김씨의 말을 채용하기 위해 수기로 쓴 점수를 지웠다 다시 쓰는 방식이면 점 접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범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편 윤 전 시장 등의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층빌딩 화재진압 훈련 2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동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살수차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고층빌딩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4월 8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당일 선착순 배부

법원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에 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방청권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했으나, 지난 1월 7일과 3월 11일 재판에서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65석)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배정석(38석) 방청권도 이날 오후 배부한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후 10개월 만인 지난 11월 법정에서 처음 출석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선고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가 이번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페넌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선원 소개해 줄게” 속여 수천만원 뜯은 50대 구속

목포해경은 26일 선주와 선원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급여를 가로챈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 김모(5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께 선주 이모(63)씨에게 선원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행하는 등 그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월까지 4년간 8차례에 걸쳐 선주로부터 받은 선원들의 선불

금 1억56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과 올해 1월에는 선주 박모(58)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주겠다고 소개비 5500만원을 받았지만 선원을 알선하지 않기도 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선불금 비용은 본인이 알선하는 선원들의 숙박비·식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김씨의 통장을 분석해 정확한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고층빌딩 화재진압 훈련 2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동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살수차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고층빌딩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유튜브서 대마초 판매 1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대마초를 판매하고, 대마초를 피운 이모(19)군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50분께 대마초 구매자로부터 판매금 60만원을 받아 공범인 공금책에게 보내는 등 최근 한 달여 동안 총 168회에 걸쳐

4100여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판매하고, 공범인 공금책으로부터 판매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다. 이군은 또 지난달 14일 공금책이 준 대마초를 경복 포항의 본인 집에서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인 대마초 공금책을 추적하는 한편, 대마초를 사들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어머니 진료 지연에 불만 품은 30대, 응급실서 행패

○···“어머니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진료 지연에 불만을 품은 30대 응급실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는 지난 25일 밤 10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끼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응급실 바닥에 던지고 침대를 넘어 뜨리는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는 물론 자신도 호흡 곤란이 심하다는 이유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진료가 늦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180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